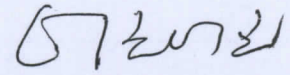


대학평의위원회 회의록

의장

결재



2023년 5월 23일 금요일 오후 14:00 ~ 15:30

장소

집현관 10층 대회의실

안건 1. 학칙 개정(안) 심의

1. 출석현황

구분	인원	성명
참석의원	10	이창길(의장), 백정우(부의장), 김나영, 이수용, 홍석원, 배원현, 신회원, 김나현, 김현수, 김여경
불참의원	3	이동일, 이재홍, 이은식
간사 및 서기	2	이기영(기획차장), 권혁준(기획과장)
배석	1	이내성(기획처장)

회

의

2. 회의내용

○ 이창길 의장 : 의장은 평의위원회가 적법하게 성립되었음을 확인하고 개회를 선언함.

(1) 학칙 개정(안) 심의

○ 이내성 기획처장이 학칙 제43조(전공 및 입학정원), 제48조(학위수여) 개정(안)에 대하여 설명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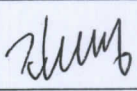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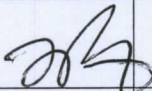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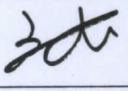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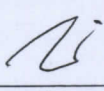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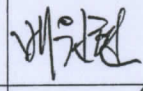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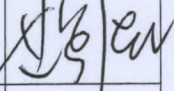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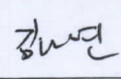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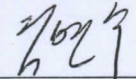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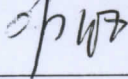

- 첨단학과 신설 목적 및 배경과 경과에 대하여 설명함.
- 첨단학과 신설 결과 및 본교 정원 순증 결과에 대하여 설명함.
- 첨단학과 신설 기대효과에 대하여 설명함.
- 신입생 통합선발에 대한 논의배경과 논의 경과에 대하여 설명함.
- 신입생 통합선발 제도 도입 관련 재학생 의견수렴 설문조사에 대하여 설명함.
- 신입생 통합선발 관련 교무위원회 결정사항 및 향후 준비사항에 대하여 설명함.
- 첨단학과 신설 및 신입생 통합선발로 인한 2024학년도 입학정원에 대하여 설명함.

○ 학칙개정에 대한 질의 및 답변

- 이창길 의장 : 편입학 여석 활용에 대하여 질의함.
- 기획처장 : 편입학 여석 활용과 결손인원 활용에 대하여 설명하고, 우리 대학은 결손인원을 활용하여 2021년도에 인공지능학과와 스마트생명산업학과를 신설하였으며, 이번 첨단학과 순증 신청 시에는 편입학여석 가점을 활용하였음을 설명함.
- 이창길 의장 : AI로봇학과 교수들의 이동은 없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내
용

의원
및
간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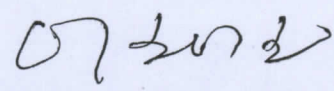
김나영 (교원)	이동일 (교원)	이수용 (교원)	이재홍 (교원)	홍석원 (직원)	백정우 (직원)	배원현 (동문)	신회원 (동문)
							
김나연 (조교)	김현수 (학생)	김여경 (학생)	이은식 (대학발전)	이기영 (간사)	권혁준 (서기)		
							

결 재	의장
	07 507 2

회의 내용

- 기획처장 : 교수들의 소속 학과 변경은 없으나, 필요시에 해당 전공의 겸임교수 등으로 겸직 발령하여 융합교육을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 중임을 설명함.
- 김현수 의원 : 국방시스템공학과나 항공시스템공학과는 2024학년도에 선발하지 않는 것인지 질의함.
- 기획처장 : 국방시스템공학과나 항공시스템공학과는 정원의 계약학과이어서 입학정원표에 기재하지 않음을 설명함.
- 김현수 의원 : 통합선발로 신입생 선발 시 소속감이 떨어지는 등의 우려가 있음을 설명함. 이를 방지하기 위해 재정 및 인력 등의 투입이 필요하다고 설명함.
- 기획처장 : 신입생의 소속감, 적성 발굴, 진로 상담 등을 소홀히 관리하면 중도탈락율이 올라갈 수 있음에 동의함. 그러한 점을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신입생 관리에 예산을 대폭 투입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하며, 신입생들이 입학 후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학교의 모든 리소스를 동원하여 사전 준비를 해야 함을 설명함.
- 김현수 의원 : 학교에 대한 애교심을 고취할 수 있는 물품(입학키트, 마스크트, 대학 상징물 등)이 필요함을 설명하며 이를 위해 학생회 및 학생지원 예산 증액과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함.
- 기획처장 : 2024학년도 새내기 지원을 사전 준비하기 위해 추경 반영 등도 가능하므로, 현 총학생회에서 적극 발굴하여 예산 반영을 요청해 줄 것을 당부하고, 대학본부와의 공동 대책 수립을 제안함.
- 이수용 의원 : 학과마다 정시 통합선발 비율이 다름에 대하여 질의함.
- 기획처장 : 수시입시요강이 이미 대교협 의 승인을 받아 수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 수시입시요강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통합선발을 하다 보니, 현재 학과마다 정시 모집비율이 약간씩 다른 상황에서 정시를 통합선발하여 발생한 것임. 내년부터는 학과 정원의 동일 비율로 통합선발할 예정임을 설명함. 또한 전공 선택 시 특정 학과로의 쏠림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가 정책 연구를 수행할 것임을 설명함.
- 백정우 의원 : 학생의 선택권은 존중되어야 하나, 이에 따른 학과의 통폐합 등으로 도태되는 학과의 문제에 대하여 우려를 제기함.
- 기획처장 : 현재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문제가 심각하며 우리 대학도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지만 향후 신입생 모집 미달 가능성을 사전 고려하여 사전 대비를 하지 않을 수 없음을 설명함. 우리 대학이 학생 중심으로 변화해야 생존 가능하며, 대학들 간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개혁과 혁신이 필수적임을 설명함. 이번 통합선발은 이러한 대책 중의 하나이며, 향후 발생할 지도 모를 학과 통폐합이 발생할 경우 교수, 학생 등 해당 학과 구성원에게 개인적 피해가 가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취할 것임을 설명함.

의원 및 간사	김나영 (교원)	이동일 (교원)	이수용 (교원)	이재홍 (교원)	홍석원 (직원)	백정우 (직원)	배원현 (동문)	신회원 (동문)
	김나연 (조교)	김현수 (학생)	김여경 (학생)	이은식 (대학발전)	이기영 (간사)	권혁준 (서기)		

결 재	의장
	

회
의
내
용

- 백정우 의원 : 단과대 행정실의 부재,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 충원 등 임시방편적 대책으로는 통합선발로 인해 증가하는 행정부담을 해소하지 못하고 혼란이 가중될 수 있음을 지적하며 행정직 제 개편 및 정규직 채용 강화를 요청함.
- 기획처장 : 우선 공과대학을 대상으로 행정실 설치 등 시범 추진을 준비하였지만, 첨단학과, 통합선발 등 긴급한 사안 발생으로 추진할 수 없었으나 적절한 시점에 재추진할 계획임을 설명함.
- 배원현 의원 : 동문에서는 동문 활용 멘토-멘티 활동 활성화를 준비하고 있으며, 총학생회의 계획에 맞게 조직화할 예정으로 이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함을 설명함.
- 기획처장 : 홍보영상을 예를 들며, 소속감 고취에는 동문회의 역할이 중요함에 동의함.
- 김나영 의원 : 2025년부터는 예체대도 통합선발을 추진할 예정이라고하나 학과 특성이 상이하여 통합선발에 어려움이 있음을 설명함.
- 기획처장 : 2025년도 선발 관련해서는 별도 상의가 필요하다고 답변함.
- 이창길 의장 : 통합선발에 따른 입시 경쟁률 변화를 사전 연구하여 대비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으며, 변화에 따른 혼란을 줄일 수 있도록 홍보전략 및 구성원 의견수렴 등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함.
- 김여경 의원 : 학생회의 사전 준비를 위해 통합선발에 따른 커리큘럼 변경의 공유를 요청함.

3. 회의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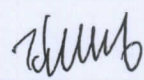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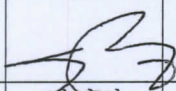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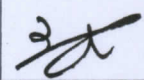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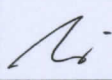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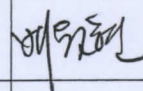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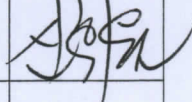
- 학칙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함.

4. 폐회 선언

- 의장은 위의 안건에 대한 심의와 원안 의결이 완료되었음을 확인하고 폐회를 선언함.

5. 회의자료 : 붙임 참조

- 2023학년도 제2차 대학평의원회 회의 안건 1부. 끝.

	김나영 (교원)	이동일 (교원)	이수용 (교원)	이재홍 (교원)	홍석원 (직원)	백정우 (직원)	배원현 (동문)	신회원 (동문)
의원 및 간사								
	김나연 (조교)	김현수 (학생)	김여경 (학생)	이은식 (대학발전)	이기영 (간사)	권혁준 (서기)		
	김나연	